

## 23.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도시재창조국장)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- 상정일자
  - 대구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
 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년 4월 15일) :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)

### ☐ 제안이유

- (재)대구문화재단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중 교육청이 운영하던 공간이 사용종료('21.2.28)됨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이 기존 「범어아트스트리트」 공간을 확대하여 지하도상가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일괄 활용하여 특화 운영코자 함.
- 출연기관인 (재)대구문화재단이 전담 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

고자 대구광역시의회 동의권을 얻으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가. 면제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7조

나. 대상시설

- 위 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35번지



- 규 모 : 전체연면적 8,752㎡, 연장 370m
- 조성연도 : 2009. 12월 (주)해피하제 기부채납
- 조성비용 : 48,473백만원
- 공간활용(72개실, 관리사무소 포함)

구 분	시 설 용 도	연 면 적
	총 면 적	2,252.32㎡
지하1층	스튜디오(창작 및 기획), 벽면갤러리, 예술교육체험실(33개실)	1,038.03㎡
	교육청 운영 공간 사용종료 ☞ 공실(39개실)	1,214.29㎡

다. 사용료 추산액

재산 소재지	사용대상	사용면적	연간사용료(천원)
수성구 범어동 835번지	점포 72실	2,252.32㎡	204,535

※ 산출근거 :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(90,811원/㎡당)

라. 사용허가 기간 : 2021. 5. 1 ~ 2026. 4. 30.(5년)

## 마. 면제 필요성

- 범어지하도의 유희공간을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교육의 공간,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제공
- 창업예술인 지원 및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확산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
-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전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문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지역 문화 공동체와 소통하여 문화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함.

## □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### □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범어지하도상가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,
- 먼저, 범어지하도상가 건립과 관련하여  
범어지하도상가는 수성구 범어동 835번지 소재 범어역지하도에 위치

하고 있으며, 2010년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으로,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범어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겸 상가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 485억원의 조성비용으로 건립되었음.

### ○ 범어지하도상가 시설 및 활용현황

범어지하도상가는 전체연면적 8,752㎡, 상가 연장 370m 규모에 총 72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대구시설공단에서 시설을 유지·관리하고 있으며, 총 72개의 점포 중 33개는 대구시와 (재)대구문화재단간 협약을 통해 '범어아트스트리트'로 활용중이고, 나머지 39개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영어거리로 활용하였으나, 금년 2월에 사용 종료되어 현재 공실로 (재)대구문화재단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○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주요내용 검토

(재)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관련법상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, 사용·수익허가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하며,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음.(2021.4.14.)

또한, 현재까지 전시공간, 벽면 갤러리, 예술교육체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, 향후 총 72개실(공실 39개 포함)의 공간을 '범어아트스트리트'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(재)대구문화재단에서는 대구시 공유재산인 범어지하도상가가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교류의 공간,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발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는 등 사용료 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, 대구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39개 점포를 새로이 활용해야 하는데 입주자 선정(자격)은?	○ 대구문화재단 운영 내규에 입주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음.
○ 예술인 창작활동공간이 다른 곳도 많은데, 이 공간은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게 좋다고 보는데?	○ 기존 33개 공간의 경우,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업·전시·교육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, 바로 앞 영어마을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함. 예술인들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 분들에게 재능을 활용하여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보고자 함.

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